

# 서촌 명물 ‘엽전도시락’만 반짝... 통인시장의 굴욕

흔들리는 자영업  
서울 주요 상권 가보니

## ⑥ 서촌 <끝>

임대료 90만원·월 매출 100만원  
휴가·폭염에 휴업점포 우후죽순  
통인시장도 ‘도시락’ 마감엔 한적  
임대료 분쟁사건 후 폐허 되기도



“한 달 임대료가 90만원인데 월 매출은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수익 없이 가게 월세만 겨우 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통인시장에서 카페를 개업한 점주 A(49)씨는 음료 한 잔이라도 더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휴가철로 최근에는 손님이 줄었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하고 있다.

A씨는 “통인시장 점포들의 월 평균 임대료는 60만~80만원”이라며 “장사가 안 되어서 2~3주씩 쉬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 ◆오후 4시 이후 한적한 통인시장, 폭염으로 휴업 점포 다수 생겨

13일 ‘경복궁의 서쪽’ 서촌에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점포를 돌며 도시락 통에 반찬을 채워 넣는 손님 다수가 눈에 띄었다. 통인시장의 명물인 ‘엽전도시락’이다.

엽전이라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상인들이 판매하는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러 온 연인들

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넘쳐나는 편이지만 엽전도시락 마감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한적해진다.

연일 37도에 가까운 폭염이 한 달 동안 이어지면서 장사가 되지 않아 휴업에 들어간 점포들도 몇 군데 있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이르러 손님들로 제법 북적이고 있던 한 유명빵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점원으로 보이는 청년 3명이 갓 구운 빵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였다. 30여 년간 빵집을 이끌어 온 점주 B씨는 “자식들과 조카가 일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보기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다”라며 “주말과 평일 매출액 차이가 심하다”라고 했다.

통인시장에서 나와 필운대로를 따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로 향하던 중 중심상권에서 벗어난 곳에서 폐업한 가



게 한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건물 1층에 자리한 제법 넓은 공간이었다. ‘임대문의’라고 적힌 문구가 굳게 닫힌 유리문 앞에 붙어 있었다.

건물 맞은 편 그늘에 앉아 쉬고 있던 서촌 주민 C(80)씨에 따르면 본래 이곳은 호프집이 있던 곳이었지만, 올해 초부터 비어있는 상태라고 전한다. C씨는 “최근 수년간 가게 3곳이 연달아 문을 닫았다”며 “마지막에 영업하던 호프집도 1년이 안 되어 폐업했다”라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하는 서촌의 3.3㎡당 월 평균 임대료는 200만~300만원, 권리금은 1000만원이다. 장사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지역의 매출액 차이가 크다.

### ◆임대료 분쟁 ‘망치사건’ 그 후

서촌에서 가장 변화한 상권으로 알려진 ‘세종 음식문화거리’로 자리를 옮겼다. 낮에 찾은 이곳의 모습은 사람들로 북



▲ 지난 6월 임대료 분쟁으로 ‘망치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모습, 1층 공중족발을 포함해 건물 전체가 비어있다.

◀ 서울시 종로구 통인시장의 오후 풍경

▶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의 오후 풍경



적이는 저녁에 비해 한산했다. 고깃집, 횡집 등 음식점이 즐비한 이 곳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부터 배화여자대학교 입구까지 300m정도 거리에 형성돼 있었다.

수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D씨는 “요새는 휴가철이라 사람이 별로 없다”며 “전에 비해 확실히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숨 쉬었다.

음식점 사이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비어 있는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최근 ‘망치사건’으로 화제가 됐던 공중족발 건물이다. 족발 집을 운영하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 6월 7일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내려친 일이다. 현재 족발 집이 있던 건물 1층 문 앞에는 “허락 없이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건물주인이 써 놓은 글이 붙여 있었다.

인근 주민 중 한 명은 “점주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 건물에서 새로 장사하려는 사람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 건물은 1층에 있던 족발 집 외에도 PC방, 사진관, 당구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 쓸쓸하게 세종문화거리의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촌에 있는 상가들의 월 임대료가 200여만원 정도인데 1000만원으로 올리니 당연히 다들이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며 “3년 이상 점포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는 드물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종로구의 폐업률은 2.9%, 3년간 개업대비 폐업률은 98.7%이며 평균 폐업기간은 3년이다. /글·사진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막바지 휴가 여행객 ‘복적’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막바지 휴가를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갤노트9’ 공시지원금 23만7000원 책정

### 삼성전자-이통 3사, 예약판매 돌입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이 더 유리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갤럭시 노트9(갤노트9)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이동통신사는 최대 23만7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별로 6만5000~23만7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준다.

갤노트9의 출고가는 128GB 모델이 109만4500원, 512GB 모델이 135만3000원이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15%)까지 받으면 각각 최저 82만2000원, 108만5000원에 살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중 지원금을 가장 많이



실은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가장 저렴한 3만2000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7만5000원, 가장 많이 쓰는 6만5000원대 요금제에서 14만8000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8만8000원대 무제한요금제에서는 21만2000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한다.

SK텔레콤은 3만3000원대 요금제에서 6만5000원, 6만원대에서 13만5000원, 11만원대 요금제에서는 23만7000원을 지원

한다. KT는 요금제별로 6만7000원에서 22만원을 책정했다.

다만, 갤럭시9를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선택약정 25%로 가입할 때의 혜택이 더 유리하다.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총 요금할인액은 3만2000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19만70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 39만5000원, 11만원대 요금제에서 66만원에 달한다. 요금할인액이 추가 지원금을 합한 총 지원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에 따라 갤럭시9 구매자의 상당수가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갤노트9의 사전예약은 20일까지 진행된다. 정식 출시일은 24일이다. 예약 고객은 21일부터 제품을 먼저 받아 개봉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금감원, 자체 GDP 성장률 예측모형 구축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13일 국내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거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GDP성장률 예측 모형인 ‘케이-슈퍼캐스트(K-Super Cas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체 GDP 예측모형을 개발한 것은 적시성을 위해서다. GDP 성장률은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중요 지표지만 발표 주기가 길어 적시성이 떨어졌다.

케이-슈퍼캐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뉴욕이 개발해 사용 중인 ‘나우캐스팅(Nowcasting)’을 벤치마킹했다. 나우캐스팅 역시 최신 수치 등을 활용해 적시에 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FRB 뉴욕은 나우캐스팅을 활용해 매주 향후 2분기의 GDP 예측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모형은 2008년 이후 82개 거시 경제 시계열 자료를 가중 평균해 GDP 예측치를 산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슈퍼캐스트를 통해 과거 GDP 발표치를 검증한 결과, 신뢰성이 검증됐다”며 “올해 발표되는 과거 데이터로 1분기 GDP성장률을 모형에 따라 매주 예측한 결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제값(1.0)으로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케이-슈퍼캐스트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감독목적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t@

## 7월 임대주택 2.1만채... 전월 비 18.7% ↑

서울·경기도가 전체 67.4% 차지

지난달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만 채를 넘어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7397채)과 경기도(6659채)가 총 1만4056채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이 1만252채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장기 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매달 6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6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2475명)과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중부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며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신화 기자 csh9101@